

같이 보기

: 소통N공감

코로나19 이후로 여행이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때다.
친구들과 모여 술 한잔하기 보다 건강을 더욱 챙기기도 한다.
그렇다고 여가활동을 재미없게 보낼 수는 없는 법.
요즘 2030세대는 등산, 골프, 낚시 등 이른바 '아재 취미'에 폭 빠졌다.

글 편집실



너의 취미는?

2030세대, 아재 취미에 빠지다!



아재취미? 무슨 소리!

마치 옷에 단풍이 든 듯 알록달록 요란한 색상의 등산복을 입은 무리. 지금까지 '등산'하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이미지다. 등산 뿐일까. 골프와 낚시도 부모님 세대가 떠오른다.

하지만 이제는 고정관념일 뿐이다. 등산, 골프, 낚시 등 이른바 '아재 취미'로 불렸던 활동들이 이제 2030 세대의 새로운 취미로 급부상 중이다. 코로나 이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젊은 등산객들을 산에서 쉽게 찾

아볼 수 있다. 소셜미디어(SNS)에는 화려한 등산복 대신 티셔츠에 레깅스, 긴 양말에 컬러풀한 신발이나, 스포츠 브랜드로 무장한 젊은 세대들의 등산 인증샷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인증샷 뿐 아니라 등산 코스, 소요 시간 및 난이도도 기록하여 공유한다. 기록에 익숙한 젊은 층답다.

리서치 전문 기업 '엠브레인'에서 실시한 '등산'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최근 등산 인구가 증가한 이유로 '코로나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껴져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혼자서도 쉽게 즐길 수 있어서', '타인과의 접촉(대면)을 피할 수 있어서'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렇게 코로나19 전파가 걱정되는 실내보다 야외 활동을 선호하면서 아재 취미라고 불리던 등산과 골프, 낚시 등을 즐기는 젊은 층이 늘어났다.



Fishing



등산에서 골프, 낚시까지!

골프와 낚시도 등산과 함께 젊은 층에게 떠오르는 핫한 취미가 됐다. 이 역시 야외에서 가능한 활동이란 점과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 혹은 혼자서도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레저산업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1년 새 늘어난 골프 인구 44만 8,000명 중 11만 9,000명이 2030세대였다. 이런 젊은 세대의 관심에 힘입어 '골프는 고급 스포츠'라는 인식이 사라지고 있다. 탁 트인 골프장의 자연을 만끽하면서 스포츠를 즐긴다.

낚시 역시 더 이상 '아재'들만의 취미가 아니다. 중장년 남성이 가득하던 낚시터 모습이 바뀐지 꽤 됐다. 20~30대나 가족과 함께 낚시터를 찾는 이들이 늘었다.

배를 타고 나가는 바다낚시 역시 20~30대에게 새로운 취미로 급부상 중이다. 낚시 역시 혼자 혹은 소수로 즐길 수 있어서 코로나19로 제한되던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듯 '등린이(등산+어린이)', '산린이(산+어린이)'나 '골린이(골프+어린이)', '낚린이(낚시+어린이)' 등 아재취미에 새롭게 입문하는 이들을 일컫는 신조어도 생겼다. 코로나19가 만든 새로운 트렌드다. 🐾

